

# “일일이 관여하는 감독관행 벗을 것”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 혁신에 자율적으로 앞장서도록 소비자 보호효과 현장에 나타나도록 영업관행 개선”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일정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에 자율적으로 앞장서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신임 금감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자기책임 아래 혁신에 자율적으로 앞장서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금융감독 역할이 중요하며 운을 띄웠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위함이 적절히 관리돼야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져 금융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이 제대로 자리잡는 것은 한국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이 본연의 역할과 기

능을 다해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법과 규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소통과 지원을 통한 자율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히 소통하겠다”면서 “금융사가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아래 실무경계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혁신에도 자율적으로 앞장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윤석현 금감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기구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와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소비

자 눈높이에 맞춰 금융권 영업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결국 평형을 이뤄나간다”며 “금융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 삶을 개선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 공정위, 年 80만 소비자불만 정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80만건에 이르는 소비자 불만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연간 약 80만건의 소비자 상담 또는 소비자불만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중이다. 상담건수는 2010년 약 73만건에서 지난해 약 80만건까지 늘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상담정보는 약 643만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상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발성 소비자 민원, 이상징후 품목 등은 공정위의 소비자문제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 법 위반행위 직권조사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

소비자불만 다발 품목을 공정위의 상품비교정보 사업과 합리적 거래개선 사업의 대상품목 선정에도 활용한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평가와

제 지평에도 이같은 정보를 적극 감안한다.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소비자 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업 관심 품목의 소비자 상담 동향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 정보를 전면 개방하는 시스템도 검토할 예정이다. 불만이 제기된 기업이 시장압력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거나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 예방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중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상담 정보 입력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분석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정책과 연계해 강화해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소비자 정책과 법집행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8조원...전년비 2500억 ↑

올해 정부 출자주식의 배당금이 1조 8060억원으로 확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출자기관 36개 중 올해 배당이 없는 11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의 배당금이 주주총회 등 결산 승인을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

지난해 1조5562억원보다는 2468억원(16.1%)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의 배당 확대 방침에 따라 평균 배당 성향이 지난해 31.98%에서 올해 34.89%로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

된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당금을 소관·회계별로 보면, 일 반회계에 8622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9436억원이다.

현재까지 23개 기관의 배당금 1조 7994억원이 수납됐고, 한국방송공사(4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20억원)는 하반기 국회 결산 승인을 거쳐 국회에 수납될 예정이다. /뉴시스

## 전북개발공사, 임실 농어촌임대주택 95가구 공급

전북개발공사가 장수에 이어 임실군 임실읍에 농어촌 임대주택 95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주택규모인 84㎡형 20가구와 59㎡형 75가구가 혼합된 총 9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분양되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다음달 11일

부터 14일까지이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는 각각 25일에 진행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실 농어촌임대주택은 임지적 우세함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며 “안정적 주거생활과 내집 마련 계획이 필요한 수요자의 경우 가장 스마트한 내집 마련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 음악 감상에 특화된 서비스 무료제공

###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22일 출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유튜브가 음악 감상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한다.

유튜브는 16일(현지시간) 자체 블로그를 통해 “5월 22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출시할 것”이라며 “이제 여러 음악 앱과 유튜브 사이를 오가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은 음악 감상용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과 데스크톱 플레이어다. 이 앱을 사용하면 동영상에 스트리밍에 특화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유튜브의 설명이다.

방대한 콘텐츠 보유량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튜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뮤직 비디오 외에도 수백만곡의 정식 음원, 앨범을 보유하고 있다. 다

른 앱에서 찾을 수 없었던 리믹스나 라이브 버전의 음악들도 유튜브 뮤직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용자들의 취취 기록, 위치,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등을 파악해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는 기능도 있다. 공황에서 비행을 앞두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긴장을 풀 수 있는 음악을 권하고,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서는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흥겨운 비트의 노래를 추천하는 식이다.

유튜브는 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월 이용료가 9.99 달러(약 1만8000원)다. /뉴시스

## 중고차 제외 중고시장 규모 ‘급성장’

### 오픈마켓 매출매년늘어 소비 의식 변화가 배경

중고차를 제외한 중고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국내 중고 물품 시장 규모가 2016년 기준 약 18조원을 넘었고, 현재 약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고 시장이 26조원 규모까지 커진 일본의 경우처럼 소비의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G마켓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고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매출은 30%나 증가했고, 중고 골프클럽은 4배 이상

(355%), 컴퓨터 부품은 92%, 게임 타블렛은 14%가 늘었다. 특히 중고 도서의 경우 학습 참고서(409%)와 수험서(190%)는 물론, 단행본(531%)과 요리 등의 취미도서(350%) 매출도 큰 폭으로 신장했다.

11번가의 2012~2016년 전년 대비 중고 상품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중고 물품 매출은 연평균 50%대 증반의 성장세를 보인다. 2013년에는 최고 성장률인 68%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고 시장의 거래량 등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다. 중고 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이외

에 소비자 간의 거래도 있어 그 규모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유통업계는 국내 중고 물품 시장 규모가 2016년 기준 약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중고 시장의 성장에는 소비의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 물건이 아니어도 기능에 문제만 없으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합리적인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고물품 거래 경향이 있는 직장인 송모(30·여)씨는 “이러나 저러나 소모품이고, 조금 썼던 거긴 하지만 저렴하게 사면 더 좋다”면서 “앞으로도 중고 거래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자료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산업 및 사회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도 중고 시장이 크게 성장한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소비 의식 변화를 꼽는다. 올해 2월 요미우리 신문은 쓰는 물건 대부분을 중고로 구매하는 젊은 소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달라진 소비 인식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산업성 추정 중고물품 거래 시장 규모(중고차와 중고 오토바이 제외)는 2조6201억엔(약 26조2800억원)에 달한다. /뉴시스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올림픽지 유인 지력중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력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력중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